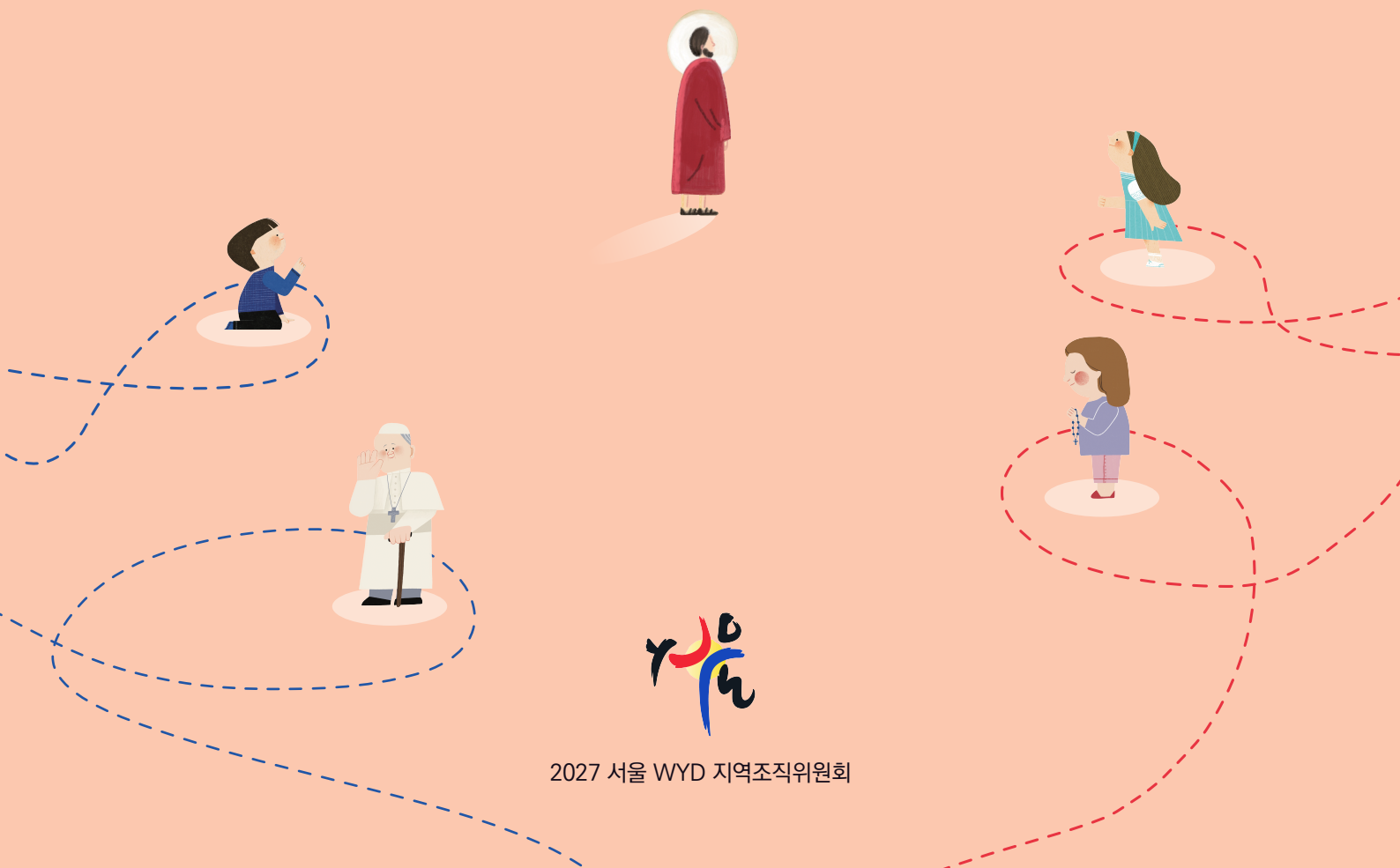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4과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슬픔, 분노, 두려움, 의심, 실패를 겪으며
늘어 간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고자
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항, 프란치스코 교황





A portrait of Jesus Christ by Rembrandt, showing a man with long dark hair and a beard, wearing a brown robe, looking slightly to the left. The painting is on a dark, textured background.



〈예수님의 초상화〉, 1645-1650, 렘브란트



생각해 보아요

- □ 여러분이 생각하는 ‘젊음’이란 무엇인가요?

.....

.....

.....

.....

.....

-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젊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일”³¹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또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떠올리며 글로 적어 봅시다.

.....

.....

.....

.....

.....

- □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느님과 종교와 교회라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그들의 감수성은 일깨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9항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

.....



○ 시작 기도

○ 나누고 듣기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노드를 위한 기도’ 16쪽을 함께 바칩니다.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오늘 모임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각자 메모지에 적고, 함께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21세기에 선종한 첫 성인이 탄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에 필요한 기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매일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쳤다. 그는 ‘성체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라거나 ‘사람들이 태양 아래 앉아 있으면 살이 타지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성인이 된다.’는 글을 적어 놓기도 했다. 그는 평범한 10대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2006년에 백혈병으로 선종했다. 『가톨릭신문』 2024.6.2.

카를로 아쿠티스 1991-2006 :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 이탈리아 소년 복자. 독학으로 컴퓨터 코딩을 익혀서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모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15세에 주님 곁으로 떠났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